

2022 사순절 시리즈 <천로역정 함께 읽기> 4강

“크리스천의 영적 무장”

- 에베소서 6:10-18 -

1. 궁전 문지기와의 대화

문지기: 왜 이렇게 늦은 거요? 해가 완전히 떨어졌으니 말이에요….

크리스천: 진즉에 올 수 있었지요. 하지만 천하에 다시없는 명청이 깃을 하고 말았어요. 고개 중턱에 있는 쉼터에서 잠이 들고 만 거예요. 두루마리까지 흘러가면서 완전히 훑아 떨어진 거죠. 꼭대기에 다다를 때까지 그 보물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보이질 않더라고요. 어찌했어요. 누웠던 쉼터까지 다시 되짚어 갈 수 밖에요. 얼마나 괴롭고 조마조마하던지! 거기서 간신히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덕분에 이렇게 다시 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지요.

2. 아름다운 궁전에서 만난 아가씨들

어서오세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곳은 댁과 같은 순례자들을 환대하려고 이 고개의 주인께서 지은 집입니다.

아름다운 궁전에서 만난 네 명의 자매: 분별(Discretion), 신중(Prudence), 자선(Charity), 경건(Piety)



경건: 순례에 나서게 된 제일 큰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크리스천: 무시무시한 환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어서 쫓기듯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는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어요.

분별: 더러 고향이 그리지 않던가요?

크리스천: “한 때 즐기기도 했던 육적인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 같은 것은 아니에요. 한때 나뿐만 아니라 고향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하던 세상적인 욕구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괴롭고 가슴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킬 따름입니다. 마음 같아선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가장 선하고 좋은 일들만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웬일인지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한 것들이 되돌아와서 마음과 행동을 파고드는군요.

(롬 7:16-19)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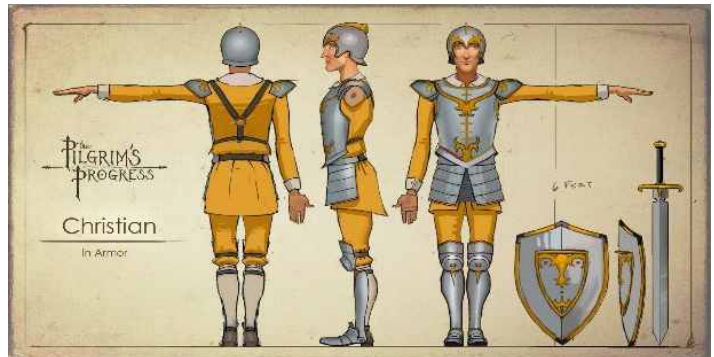
신중: 어째서 그토록 간절히 시온산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크리스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신 걸 보고 싶기 때문이죠. 지금 날 괴롭히는 것들을 죄다 떨쳐버리고 싶고요. ...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을 사랑하는 건 내 짐을 가벼게 해주신 까닭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쳤거든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에서 쉴 새 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벗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살전 1:3) 너희의 믿음의 역사(your work of faith)와 사랑의 수고(labor of love)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patience of hope)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3. 궁전 아가씨들의 선물

다음날 그들은 크리스천을 병기창으로 데리고 가서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집 주인께서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무기들-즉 칼, 방패, 투구, 갑옷,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 등-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더라



도 충분히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병기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는 날, 아가씨들은 그를 병기창으로 데려가서 여행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갖추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크리스천은 앞으로 순례의 길에서 치루게 될 전쟁을 위해 온몸에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게 된 것이다. 이어 이들은 크리스천을 데리고 궁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 저멀리 남쪽에 보이는 한 아름답고 웅장한 산을 보여주며 말했다. “저곳은 이 땅의 주인이신 임마누엘의 땅, ‘기쁨의 산’입니다. 저 산 정상에 오르면 천성의 문을 어렵없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당장에라도 그 산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작별인사를 하고, ‘검손의 계곡’을 향해 길을 나섰다.

3. 아볼루온과의 전투

검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마침내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는데, 얼마 더 나아가지 않아 추하게 생긴 괴물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 괴물의 이름은 아볼루온이었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크리스천은 돌아서서 도망쳐 버릴까, 아니면 맞서볼까 망설이면서 마음이 몹시 산란해졌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가슴받이 갑옷만 입었지 등은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돌아서서 도망간다면 마귀의 창에 관통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더욱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됨을 깨닫고 결국 용감하게 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계 9:11)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크리스천: 멸망의 앞잡이 마귀야, 잘 들어라!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삶, 그분의 일꾼들, 그분의 다스림, 함께 있는 이들, 그분의 나라를 네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해. 그러니 날 꼬드길 생각일랑 집어치워.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분을 따라갈 거니까!

아볼루온: 길을 떠나고 얼마 안돼서 잔뜩 겁을 집어먹었지? 낙심의 늪에 빠져 죽다 살았고. 그뿐인가? 어리석게 잠에 빠져서 두루마리를 잊어버린 적도 있었어. 사자들을 보고 다 집어치우고 돌아가려는 마음이 굴뚝같았고.

크리스천: 맞아. 모두 사실이야. 네가 일일이 들춰내지 못한 일들도 수두룩해. 하지만 지금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임금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언제나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셔. 물론 네 놈의 지배를 받는 동안 그런 허물들이 날 단단히 사로잡았지. 스스로 빗장을 풀고 것처럼 추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내버려뒀으니까.



5. 아볼루온에게 승리하다 크리스천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1)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2) 예수에게 대한 변하지 않는 충성.

(골 1:13-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수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3)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4)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다

(느 9:17)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미 7:8) 나의 대적이며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6.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를 지나다



자기애와 비판: 골짜기로부터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고함소리가 계속 울려나왔는데 이것은 쇠사슬로 묶인 채 꼼짝 못하고 구렁텅이 속에 잡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놓인 인간들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골짜기 위에는 절망적인 혼돈의 구름이 넓게 깔려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어두운 날개를 좌악 펼치고 있었지요. 한 마디로 말해 구석구석마다 온통 공포와 괴로움이 뒤섞인 채 질서라

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광경이었지요.

크리스천: “그렇지만 이 길만이 천성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그러니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말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약 5: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마귀 하나가 살짝 따라붙아서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얘기를 속삭였는데 크리스천은 그 말들이 모두 제 속에서 나왔다고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다. 한없이 사랑하는 분을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 때까지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 크리스천을 더 심하게 괴롭혔다. 그는 거의 깊은 수렁에 떨어질 뻔했다. 그때 어디에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